

이달의초점

## 위기 취약 청년의 현황과 정책 과제

고립·은둔 청년 현황과 지원방안

|김성애|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현황과 개선방안

|김지선|

가족돌봄 청(소)년 현황과 정책 과제

|함선유|

청소년부모 현황과 정책 과제

|이상정|

청소년 미혼모의 학업 및 자립 준비 실태와 정책적 욕구

|변수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고립·은둔 청년 현황과 지원방안<sup>1)</sup>

The Living Conditions of Isolated and Secluded Young Adults:  
Policy Options for Supporting Them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 글에서는 새로운 복지 취약계층인 고립·은둔 청년의 취약한 삶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취약성을 확인한 뒤 중앙행정기관 차원의 지원 방향을 모색하였다. 고립·은둔 청년은 타인과의 유의미한 사회적 관계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지체계의 사회적 관계 자본이 부족하거나 결핍된 고립 청년과 그중에서도 방이나 집과 같은 제한된 물리적 공간에서 살아가는 은둔 청년을 포괄한다. 고립·은둔 청년은 전반적인 삶의 만족 수준이 낮다. 그리고 교육, 경제활동, 소득수준 등 다양한 차원에서 취약성을 경험하고 있다. 청년의 고립·은둔이 장기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청년 친화적 지원이 필요하다.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은 실태조사와 법적 근거 등 안정적인 제도 기반을 바탕으로 이들의 회복과 사회통합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적으로 그냥 시체 상태였거든요.”

“(쓰레기) 방이 그냥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거 같아요.”

“방에서 생을 마감할 거라는 그런 상상을 많이 했었어요.”<sup>2)</sup>

1) 이 글은 다음 두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 김성아, 노현주, 김문길, 곽윤경, 임덕영, 신영규 ... 송치호. (2021). 취약계층 청년 범위 및 지원에 관한 연구: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을 중심으로(세종: 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성아, 노현주, 김기태, 김문길, 안수란, 신영규 ... 함선유. (2022).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모형 개발 연구(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씨리얼. (2022. 11. 18.). 히키코모리가 자기 자신이 부끄러운 이유: EP.01. 은둔형외톨이 청년의 이야기(<https://www.youtube.com/watch?v=CcqN4dKnqKo>에서 인용).

## 1 들어가며

은둔형 외톨이, 혹은 히키코모리(引き籠もり)라고 자타가 부르던 사람들이 있다. 재미 삼아 말하는 재야에서 은둔하는 고수의 이야기는 아니다. 자존감이 낮고, 쓰레기 방을 벗어나고 싶어 하기도 하고, 고독사가 두렵다고도 한다(씨리얼, 2022. 11. 18.). 고립되거나 은둔하고 있는 청년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등장하고 있다. 이들을 고립·은둔 청년이라고 부른다.

전 지구를 뒤덮은 팬데믹은 감염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서로 간 거리를 두게 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연적이었던 물리적 거리 두기는 지금에 이르러 사회적 관계의 양상을 변화시켰다. 더 이상 고립과 은둔이 다른 사람의 상황만은 아니게 되었다. 특히 독립된 성인으로서 삶과 사회 활동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고립의 경험은 지금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장년, 노인도 나이 들어 가는 전 생애에 흉터를 남길 수 있다.<sup>3)</sup>

‘고립·은둔 청년’의 개념은 몇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 우선 청년이다. 현행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을 19~34세인 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따르면 39세나 40대까지 연령 범위를 확장하는 경우도 있다(김성아 외, 2022). 두 번째는 고립되거나 은둔하고 있는 상태이다. 김성아(2022a, p. 123)는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배제의 관

점에서 사회적 고립을 “정서적 교감을 포함한 도움이 필요한 곤란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지체가 부재한 상태”로 주된 요소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타인과의 유의미한 교류가 없이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부가적인 요소로 제안하였다. 이러한 개념 정의를 고려하면 사회적 고립은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청할 지지체라는 사회적 관계 자본의 핵심 요소가 부족하거나 결핍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은둔하는 사람들은 집이나 방과 같은 물리적 공간에서 타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외출을 제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다만 임신이나 출산 등을 이유로 하거나 장애나 정신건강 지원이 필요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외출하지 않는 경우는 사회적 관계 자본이 결핍된 은둔 청년과 구별할 수 있다.

고립·은둔 청년은 타인과의 유의미한 사회적 관계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지체가 결핍된 청년으로서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와도 구별된다. 니트는 말 그대로 교육이나 경제활동, 직업 훈련 등을 받고 있지 않는 이들을 말한다. 최근에는 정책 지원 대상으로서 구직단념청년이라고도 부른다(고용노동부, n.d.). 니트, 혹은 구직단념청년이라고 부를 때, 사회적 관계나 외출 등의 행태를 고려하지는 않는다.

3) 과거 혹은 현재의 경험이 현재 혹은 미래에 존속하는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상흔효과(scarring effect)라고 부른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통해 구직 의욕이 저하된 구직단념청년과 자립준비청년, 청소년 쉼터 등의 입퇴소 청년 등을 대상으로 자신감을 강화시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에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들이 다수 참여하여 일부 고립된 상태에서 벗어나기도 하였지만, 고립 정도가 심한, 특히 은둔 상태에 있던 청년들은 이 사업에서마저도 탈락하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들이 발견되었다(유민상, 신동훈, 2022). 다시 말해 니트와 고립·은둔 청년은 교집합

을 공유하는 서로 다른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종합하면 고립·은둔 청년은 사회적 관계 자본이 부족하거나 결핍된 청년이다. 그중에서도 은둔 청년은 집이나 방과 같은 제한된 물리적 공간에서 생활한다. 생계유지를 위해 경제활동 혹은 그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니트 혹은 구직 단념청년과 구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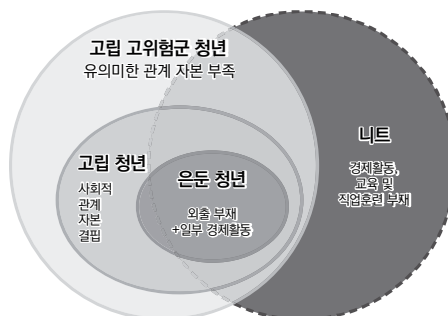
정책 지원 대상으로서 고립·은둔 청년은 사실상 현 상태를 벗어나고자 하는 스스로의 의지 또한 필요로 한다. 이는 고립과 은둔 상태를 선택할 수 있

[표 1] 고립·은둔 청년 개념 구성 지표(안)

구분	경제활동 지표	사회관계 지표	외출 지표
니트 청년	○ (경제활동 없음)	X (미고려)	X (미고려)
고립 청년	X (미고려)	○ (사회관계 자본 부족·결핍)	○ (외출 낮거나 없음)
은둔 청년	X (미고려)	○ (사회관계 자본 결핍)	○ (외출 없음)

자료: 김성아 외. (2022).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모형 개발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그림 1] 고립·은둔 청년 개념도



자료: 김성아 외. (2022).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모형 개발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다는 자발성을 인정함과 동시에(정세정, 김기태, 2022) 고립된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자신의 고립·은둔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필요로 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 및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새로운 경험 자체에 대해 불안하여 지원체계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발굴과 홍보를 해야 한다. 그렇지만 지원을 통해 현 상태를 벗어나려는 선택은 당사자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 2 고립·은둔 청년 출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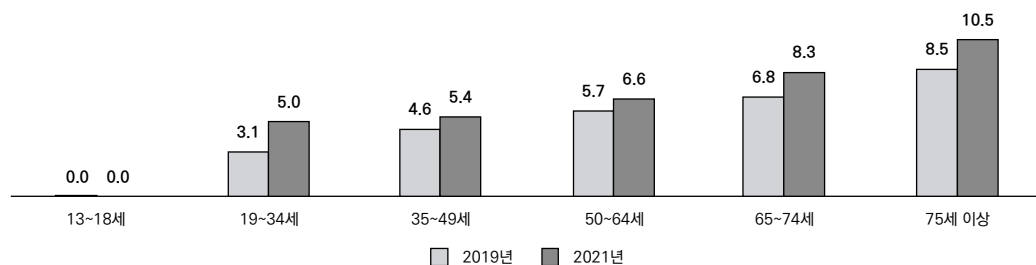
법률에 따라 고립·은둔 청년의 연령을 고려하긴

하지만, 고립과 은둔 경험이 청년 이전이나 이후 생애주기와 무관하지는 않다. [그림 2]는 13세 이상 인구의 연령대별 고립 인구 출현율을 보여 주고 있다.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미성년기인 18세 이하에서는 고립 인구<sup>4)</sup>가 아직 드러나지는 않는다. 그런데 19세 이상 청년부터 점차 고립 인구의 비율이 증가한다.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는 19~34세 청년 중 고립 청년의 비율이 3.1% 정도였는데,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된 2021년에는 5.0%로 증가하였다.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는 데에 팬데믹이 작동한 것이다.

청년기 이후 35~49세 장년 중 고립 인구의 비율은 2019년 4.6%, 2021년 5.4%이고, 50~64세 중년 중 고립 인구의 비율은 같은 기간 5.7%,

[그림 2] 연령대별 고립 인구 출현율

(단위: %)



주: 김성아(2022b, p. 75)의 조작적 정의를 따라 고립 청년은 동거하는 가족 및 업무상 접촉 이외 타인과의 유의미한 교류가 없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지지체계가 없는 경우로 정의함. 개인 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사회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4) 여기에서 고립 인구는 김성아(2022b, p. 75)의 조작적 정의를 따라 고립 청년은 동거하는 가족 및 업무상 접촉 이외 타인과의 유의미한 교류가 없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지지체계가 없는 경우로 정의한다.

6.6%이다. 65~74세 초기 노인 중 고립 인구의 비율은 2019년 6.8%, 2021년 8.3%이며, 75세 이상 후기 노인 중 고립 인구의 비율은 같은 기간 8.5%와 10.5%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고립 인구 비율이 점차 높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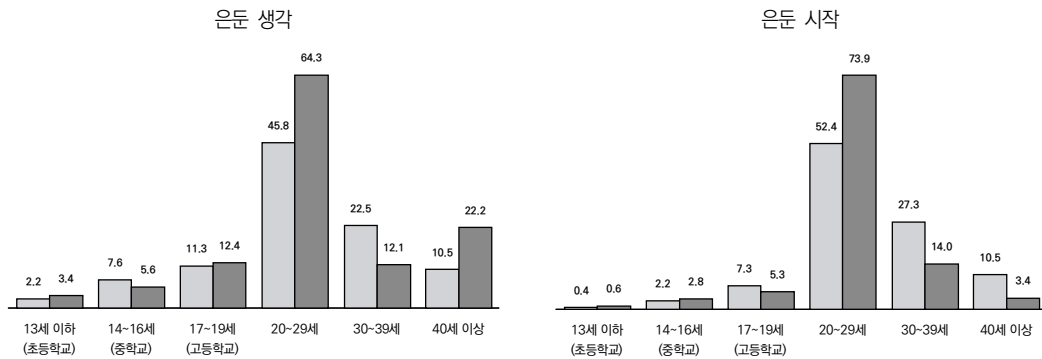
횡단면으로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사회적 고립에 보다 취약하다. 하지만 청년이 사회적 고립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의미는 아니다. 고립된 청년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시기를 지속한다면 고립된 장년, 고립된 중년, 고립된 노인으로 남은 생애를 살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 개인의 전 생애에서 중장기적으로 고립이 심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서는 청년기에 선제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부산에서 2022년 현재 은둔하고 있는 부산 시민 혹은 은둔 경험을 갖고 있는 부산 시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였다.<sup>5)</sup> 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은둔하고 있는 응답자 중 21.1% 정도가 고등학교까지의 학령기에 처음 은둔에 대해 생각했고, 과거 은둔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응답률도 21.4%로 유사하다. 20대에 은둔을 처음 생각한 비율은 각각 45.8%, 64.3%에 이른다. 그런데 실제 은둔을 시작한 나이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은 시기는 20대이다. 현재 은둔하고 있는 응답자 중에서는 52.4%가, 과거 은둔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에서는 73.9%가 20대

[그림 3] 부산 은둔형 외톨이의 은둔 생각 및 은둔 시작 연령

(단위: %)



주: 부산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에서는 부산시에 거주하면서 3개월 이상 '주로 방에서만 지내며 집 또는 방 밖으로 나가지 않'거나 '주로 집안에서 생활하며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거나 '주로 집에서 지내지만 가끔 근처 편의점이나 병원(필요한 일) 등에는 다녀'오거나 '주로 집에서 지내지만 취미활동을 할 때만 외출'하거나 '직장 또는 학교로 인해 주 3~4일 정도는 외출'하거나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끔 외출'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이 제한적인 경우를 은둔하는 것으로 정의함.

자료: 박주홍 외. (2022). 부산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부산광역시, 부산복지개발원의 p. 140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그림 작성.

5) 현재 은둔 인구(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전국 규모의 조사 자료는 부재하므로 부산광역시의 '2022년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결과를 제한적으로 인용하였다.

에 은둔을 시작했다. 30대에 은둔을 처음 생각한 비율도 현재 은둔하고 있는 응답자 중에서는 22.5%, 과거 은둔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에서는 12.1%이다. 40세 이상 시기에 은둔을 처음 생각한 비율도 낮지만은 않다. 실제 30대에 은둔을 시작한 비율도 현재 은둔하고 있는 응답자의 27.3%, 과거 은둔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14.0%에 달했다. 40세 이상 중장년기에 은둔을 시작한 응답률도 낮지 않다. 하지만 청년기인 20대에 처음 은둔을 시작했다는 응답률이 절반 이상 수준으로 높다는 것은 고립의 극단적 형태인 은둔이 청년기에 주로 발생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고립·은둔 청년에 주목하는 것은 고립과 은둔의 문제가 장기화되는 것을 예방하려는 것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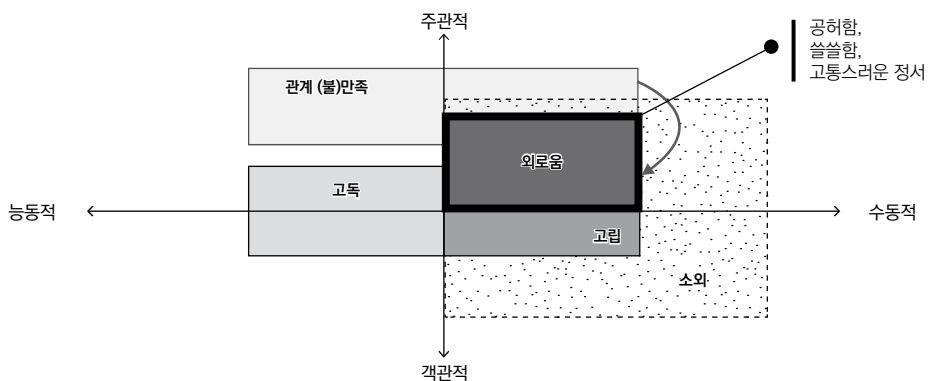
이런 맥락에서 최근 실시된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립된 청년 중에서도 임신이나 출산, 장애

등 건강상의 이유를 제외한 이유로 외출을 거의 하지 않는 은둔 청년이 전체 청년의 2.4%에 달한다. 약 24만 4000명 정도이다.

### 3 고립·은둔 청년의 취약성

숲속 월든 호숫가에 오두막을 짓고 이웃 하나 없이 단절된 채 2년 2개월 2일을 살아 낸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고립된 생활은 자발적인 것이었다(헨리 데이비드 소로, 2017). 고립되거나 은둔하고 있는 상태가 설사 취약하다고 해도 현재 상태를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것만은 아니다. 서영석 외(2020)는 인식과 선택 차원에서 고립과 관련된 개념 간 관계를 구별하였다. 월든 호숫가에서 홀로 살던 소로의 삶은 현 상태에 대한 인식과 무관하게 능동적으로 선택한 고독에 가

[그림 4] 서영석 외(2020)의 선택과 인식 차원에 따른 고립 관련 개념 구분



주: 서영석 외(2020)는 심리학적 관점에서 '외로움'에 주목하였으나, 여기에서는 청년의 '고립'된 상태에 주목하기 위해 그림 제목 수정.  
 자료: 서영석 외. (2020). 한국인의 외로움: 개념적 적의와 측정에 관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9(2), 205-248, p. 2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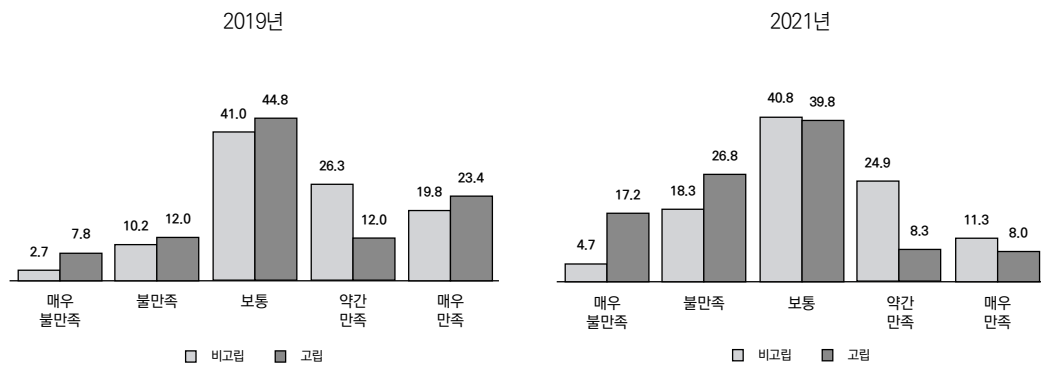
같다. 반면 고립된 삶은 수동적으로 선택당한 상태이다. 은둔 또한 모든 선택지의 유효성이 사라진 후 마지막으로 남은 선택지를 고른 것이다(노가빈, 이

소민, 김제희, 2021).

고립 청년의 삶의 만족 수준은 비고립 청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다. 삶의 만족은 전반적인 자신의

[그림 5] 고립 청년의 삶의 만족 수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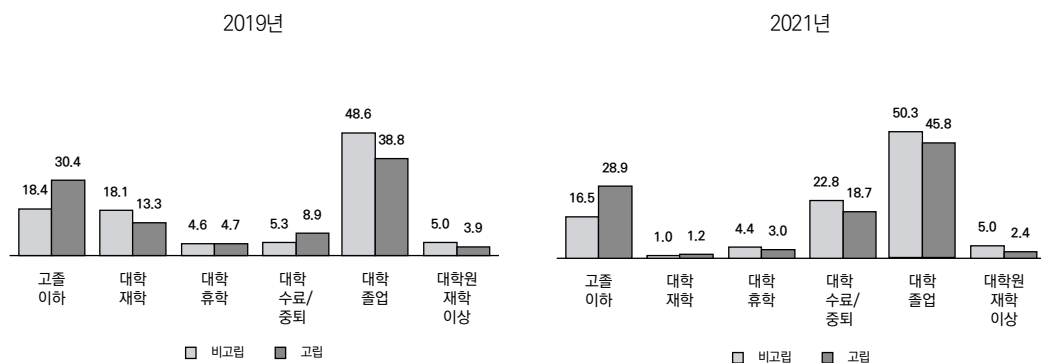


주: 김성아(2022b, p. 75)의 조작적 정의를 따라 고립 청년은 동거하는 가족 및 업무상 접촉 이외 타인과의 유의미한 교류가 없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지지체계가 없는 경우로 정의함. 개인 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사회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그림 6] 고립 청년의 교육 수준

(단위: %)



주: 김성아(2022b, p. 75)의 조작적 정의를 따라 고립 청년은 동거하는 가족 및 업무상 접촉 이외 타인과의 유의미한 교류가 없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지지체계가 없는 경우로 정의함. 개인 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사회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삶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반영한 것으로, 행복의 대리 지표로 쓰이곤 한다(OECD, 2013). 다시 말하면 고립 청년은 고립되지 않은 청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덜 행복하다. 고립된 상태가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었다면 고립 청년이 덜 행복할 이유가 없다. 물론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는 고립 청년 중 삶에 대해 '매우 만족'하는 비율이 비고립 청년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고립 청년 중 삶에 '매우 불만족'하거나 '불만족'하는 비율이 비고립 청년에 비해 높고, '약간 만족'하는 비율은 절반 정도로 낮다. 2021년에는 고립 청년 중 삶에 '매우 불만족'하는 비율이 17.2%로 비고립 청년 4.7%의 세 배 정도에 달한다. 삶에 '약간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률은 비고립 청년이 고립 청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고립 청년이 덜 행복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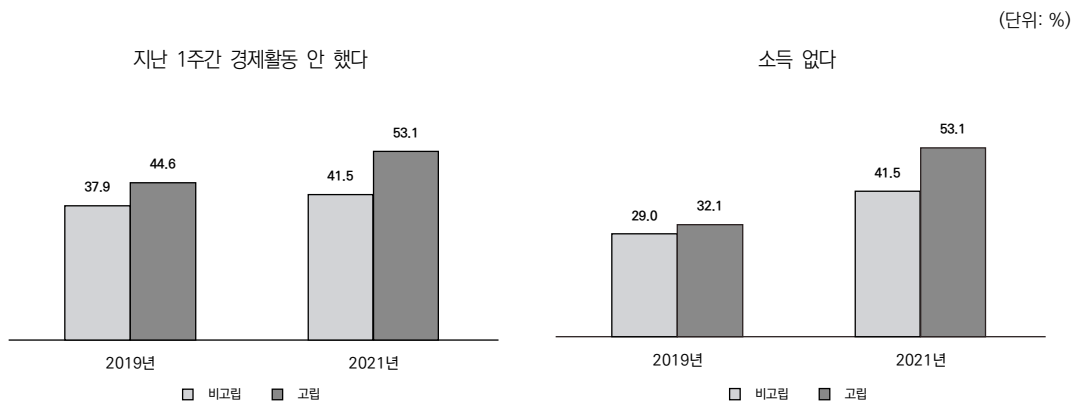
는 것은 이들의 취약성을 방증하는 것이다.

고립 청년은 비고립 청년에 비해 고졸 이하의 비율이 높다. 2019년에는 비고립 청년 중 18.4%가 고졸 이하, 고립 청년 중 30.4%가 고졸 이하였고, 2021년에는 그 비율이 각각 16.5%와 28.9%였다. 대학 재학·휴학·수료·중퇴·졸업이거나 대학원 재학 이상인 경우의 비율이 낮아 전반적으로 교육 수준은 낮은 편이다.

고립 청년 중 지난 1주간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비율이 2019년 44.6%, 2021년 53.1%로 비고립 청년 37.9%와 41.5%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실제로 가구소득이 없는 경우도 고립 청년은 2019년 32.1%, 2021년 53.1%로 나타나 비고립 청년의 29.0%, 41.5%보다 높은 수준이다.

고립 청년의 경제적 취약성은 주관적 소득수준

### [그림 7] 고립 청년의 경제활동 및 소득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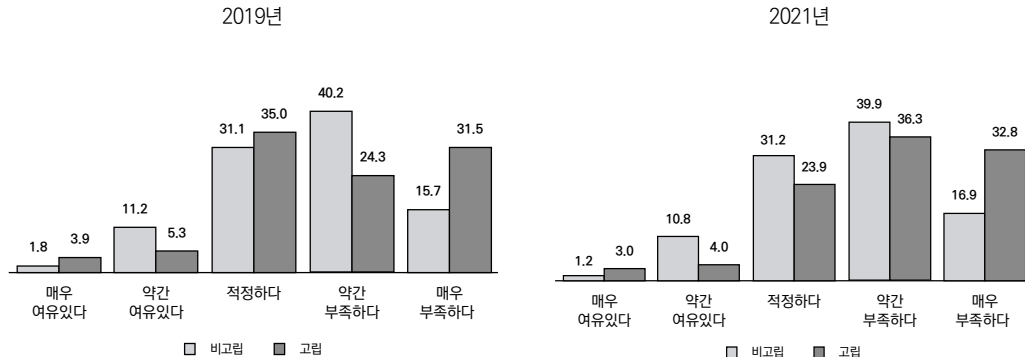


주: 김성아(2022b, p. 75)의 조작적 정의를 따라 고립 청년은 동거하는 가족 및 업무상 접촉 이외 타인과의 유의미한 교류가 없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지지체계가 없는 경우로 정의함. 개인 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사회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그림 8] 고립 청년의 주관적 소득수준

(단위: %)



주: 김성아(2022b, p. 75)의 조작적 정의를 따라 고립 청년은 동거하는 가족 및 업무상 접촉 이외 타인과의 유의미한 교류가 없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지지체계가 없는 경우로 정의함. 개인 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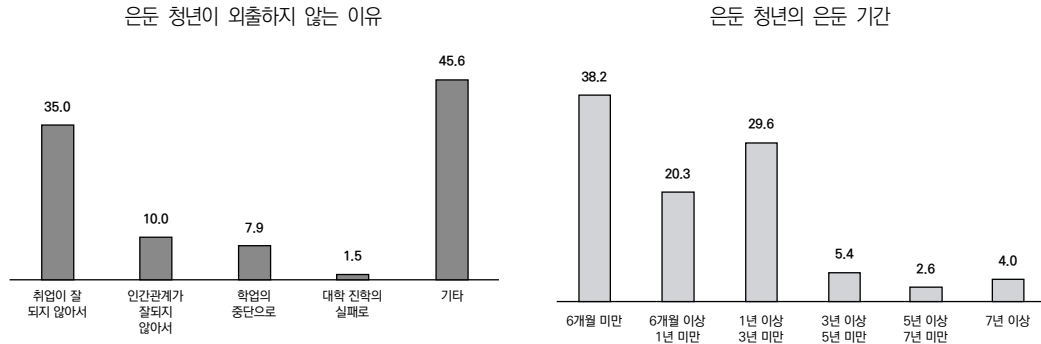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사회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에서 보다 명확하게 나타난다. 2019년에 고립 청년 중 주관적 소득수준에 대해 ‘매우 여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9%로 비고립 청년의 응답률 1.8%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고립 청년의 ‘약간 여유 있다’는 응답률은 5.3%로 비고립 청년 11.2%의 절반 수준이고, 특히 ‘매우 부족하다’는 응답률은 31.5%로 비고립 청년 15.7%에 비해 매우 높다. 이러한 경향은 2021년에도 나타나는데, 주관적 소득수준에 대해 비고립 청년 중에서는 16.9%가 ‘매우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데에 반해 고립 청년 중에서는 32.8%가 ‘매우 부족하다’고 인식한다. 고립 청년의 경제적 수준은 매우 여유 있는 경우와 매우 부족한 경우가 비교적 극단적이다. 특히 ‘매우 부족’한 취약 집단이 두드러진다.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은둔 청년이 응답한 외출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기타가 가장 다수를 차지하였다. 은둔하는 명확한 이유를 선택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 외에 응답률이 높은 것은 ‘취업이 잘 되지 않아서’였다. 다른 또래들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해서 경제활동을 하는데, 나는 잘 되지 않고, 그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은둔하게 되는 것이다. 그 외에도 ‘인간관계’나 ‘학업 중단’을 이유로 하는 경우가 각각 10.0%와 7.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청년기는 교육을 이수하고, 경제 활동을 시작하고, 가족 이외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며 독립에 이르는 이행의 시기(transition to adulthood)이다(Billani & Liefbroer, 2010; Buchman & Kriesi, 2011; 김문길 외, 2022; 김성아, 김지연 외, 2022 발간예정). 그런데 학업을

[그림 9] 은둔 청년의 은둔 특성

(단위: %)



주: 은둔 청년의 조작적 정의는 장애, 임신, 출산 이외 이유로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하거나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하거나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거나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 19~34세 청년임.

자료: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23. 3. 7.). 첫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무조정실에서 내용 발췌하여 그림 저자 작성.

중단하거나 대학 진학에 실패하고, 취업이 잘 되지 않고, 인간관계가 잘 되지 않아 은둔하는 청년들이 이행기 과업을 완수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은둔 청년의 은둔 기간을 보면 6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이 38.2%로 높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은둔하고 있는 청년은 20.3%, 1년 이상 3년 미만 동안 은둔하고 있는 청년은 29.6%에 이른다. 3년 이상 은둔하고 있는 청년은 12.0%에 달한다. 독립된 성인으로서의 삶을 준비하며 생애 가장 활발한 청년기에 장기간 은둔하고 있는 청년이 적지 않다.

#### 4 나가며

고립·은둔 청년은 기존의 경제적 취약계층 개념

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유형의 취약계층으로 등장했다. 2023년 보건복지부 업무 추진계획에 새로운 복지수요로서 취약 청년이 명시되었고(보건복지부, 2023. 1. 9.), 2024년 정부 예산안 편성 및 작성 지침에 한부모가족과 함께 고립·은둔 청년이 새롭게 나타나는 복지 대상으로 표시되기도 했다(기획재정부, 2023. 3. 28.). 보건복지 분야의 새로운 사업으로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지원 사업의 방향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을 통해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최종 목표는 지원받는 청년이 고립·은둔 경험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상태를 벗어나 지역사회 주민과 어울리면서 사회에 재통합되고 건강한 민주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어야 한다. 고립·은둔 청년은 심리·정서적 활력 저하로 고립·은둔하거나 고

립·은둔 경험이 지속되면서 활력이 저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고립·은둔 청년에게는 최종적인 사회 통합에 이르기 위해 활력을 회복하고 사회에 재적응하는 중간 단계가 필요하다.

지원 사업의 첫 번째 단계 목표는 심리·정서적 활력 회복이다. 고립·은둔 상태를 유지하면서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혹은 낮아진 자존감 등 자기 인지의 오류를 개선함으로써 자기 이해를 증진하고 심리·상담 지원을 통해 활력을 회복할 수 있다. 그리고 고립·은둔 상태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과 다시 만나고 지원 인력 등 타인과의 관계를 재형성하면서 갈등을 경험할 수 있으나, 이를 인정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학습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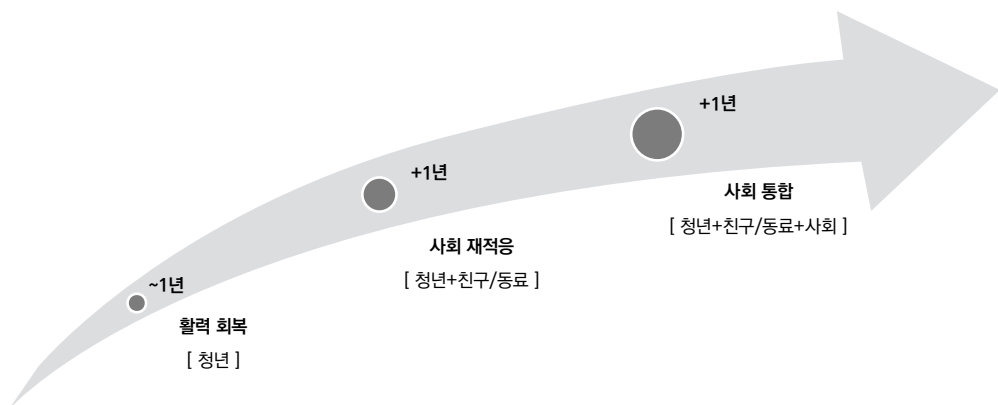
지원 사업의 두 번째 단계 목표는 사회 재적응이다. 이 단계에서 고립·은둔 청년은 지원인력 외 친

구나 동료 등과 사회적 관계를 재형성하면서 사회 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유발되는 갈등을 관리하는 기술을 연습하고 사회에 재적응할 수 있다.

지원 사업의 최종 목표는 사회 재진입과 사회통합이다. 이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청년이 결국에는 고립·은둔 경험의 유무와 무관하게 지역 내 청년 및 주민과 어울려 독립된 민주시민으로 살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고립·은둔 경험으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고, 탈고립·탈은둔한 청년이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청년을 이해하며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선배이자 동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이 일회성 시혜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제도 기반이 필요하다. 그 첫째는 실태조사이다. 고립·은둔 청년이

[그림 10] 고립·은둔 청년 지원 목표 및 단계




자료: 푸른고래 리커버리센터(2022. 9. 2.) 및 김혜원, 김지연. (2022). 파이(PIE) 은둔 및 고립청년 지원프로그램 매뉴얼. p. 11 그림을 참고하여 김성아 외. (2022)에서 작성한 그림.

수면 위로 등장하면서 그동안 몇 건의 실태조사 경험도 누적되었다(김성아 외, 2022, p. 175). 팬데믹 이후 심화된 새로운 복지 수요로 고립·은둔 청년이 등장한 것과 같이 이들의 취약성은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혹은 지금은 미처 짐작하지 못하는 새로운 취약계층이 어느 순간 등장할 수 있다. 청년의 고립·은둔 실태와 그 이면의 세밀한 삶 경험에 대한 주기적인 전국 규모의 실태 조사를 통해 지원 사업의 적절성과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복지 수요를 발견할 수 있다.

안정적인 제도 기반으로 필요한 두 번째 요소는 법적 근거이다. 2023년 4월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록된 ‘고립’을 키워드로 하는 자치법규는 111건, ‘고독사’를 키워드로 하는 자치법규는 232건, ‘은둔’을 키워드로 하는 자치법규는 13건 검색된다.<sup>6)</sup> 점차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립과 은둔, 고독사에 대응하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기관에서도 사회적 고립에 대응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법률의 차원에서 여전히 고립·은둔 청년은 존재하지 않는다.

2023년 5월 현재, “가족돌봄·질병·장기미취업 등의 이유로 고립되거나 은둔을 택한 청년들의 안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청년자립지원법안”이 발의되었다<sup>7)</sup>. 법률이 제정되지는 않았지만, 고립·은둔 청년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중앙행정기관 차원 지원 사업의 합법성을 제

공하는 법률로서 의의를 가진다. 새로운 법안, 혹은 지원 사업이 고립·은둔 청년만을 발굴해 배타적으로 지원한다면, 그들이 사회로 재통합되는 것을 유인하기보다 새로운 장벽을 만들어 다시금 고립시킬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다양한 이유로 독립된 성인으로서의 삶을 준비하기에 복합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며 고립된 취약 청년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청년복지가 바람직하다.

고립·은둔 청년은 타인과의 유의미한 사회적 관계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지 체계의 사회적 관계 자본이 부족하거나 결핍돼 있다. 팬데믹 이후 새롭게 발견된 복지 수요이자 신(新)취약계층이다. 전통적인 복지제도 방식으로는 이들을 이해하기도, 이들의 사회통합을 지원하기도 수월하지 않을 수 있다. 기존의 복지 전달체계에 취약한 고립·은둔 청년이 찾아오는 것을 기대하는 것도 쉽지 않다. 청년 친화적 전달체계가 필요하다. 더욱이 고립·은둔 청년의 회복과 재통합을 지원하는 사업이 일회성에 그친다거나 불연속적으로 불안정하게 시작된다면 사회적 관계 자본의 결핍을 보완하기 위한 지원이 오히려 새로운 결핍을 양산할 수 있다.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이 새로운 사회적 지지 체계로서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고립’, ‘고독사’, ‘은둔’을 키워드로 2023. 4. 23. 검색한 결과다.

7) 김거수, (2023. 5. 1.) 국회 윤창현 의원, 청년자립지원법 대표 발의, 충청뉴스.

##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n.d.). 청년도전지원사업.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young/list18.do>에서 2023. 4. 3. 인출.
- 국무조정실. (2023. 3. 7.). 첫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 기획재정부. (2023. 3. 28.).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 김거수. (2023. 5. 1.) **국립 윤창현 의원, 청년자립지원법 대표 발의**, 충청뉴스.
- 김문길, 오선정, 김형주, 류승한, 서복경, 김태완 ... 김지민. (2022). **청년정책의 패러다임과 전략과제 연구: 청년의 삶과 소득**.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김성아. (2022a). 사회적 고립의 심리적 비용: 주요국과의 비교. **사회보장연구**, 38(3), 115-152.
- 김성아. (2022b). 고립의 사회적 비용과 사회정책에의 함의. **보건복지포럼**, No.305.07, pp. 74-86.
- 김성아, 김지연, 김문길, 조성은, 정세정, 노혜진 ... 장성현. (2022 발간예정). **청년정책 지원대상 연구: 취약 청년과 지역 청년을 중심으로**.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김성아, 노현주, 김문길, 박윤경, 임덕영, 신영규 ... 송치호. (2021). **취약계층 청년 범위 및 지원에 관한 연구: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을 중심으로**. 세종: 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성아, 노현주, 김기태, 김문길, 안수란, 신영규 ... 함선유. (2022).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모형 개발 연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혜원, 김지연. (2022). **파이(PIE) 은둔 및 고립청년 지원프로그램 매뉴얼**. 경기: 도서출판 리체레.
- 노가빈, 이소민, 김제희. (2021). 청년 은둔형 외톨이의 경험과 발생원인에 대한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73(2), 57-81.
- 박주홍, 손지현, 서두산. (2022).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부산: 부산광역시, 부산복지개발원.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립’, ‘고독사’, ‘은둔’을 키워드로 검색. <https://www.law.go.kr>에서 2023. 4. 23. 인출.
- 보건복지부. (2023. 1. 9.).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세종: 보건복지부.
- 서영석, 안수정, 김현진, 고세인. (2020). 한국인의 외로움: 개념적 적의와 측정에 관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9(2), 205-248.
- 유민상, 신동훈. (2022). **2021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사후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임형근, 김성웅, 박순영, 이세라, 최상희, 김영지, ... 이수아. (2020). **2020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광주: 광주광역시, 폴인사이트.
- 정세정, 김기태. (2022). 사회배제를 보는 또 다른 시각: 도움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 **보건복지포럼**, 306, 77-89.
- 파이교육그룹. (2020). **고립청년(은둔형외톨이) 실태조사 최종보고서**. 서울: 청년재단.
- 푸른고래 리커버리센터. (2022. 9. 2.)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모형 개발 연구 2차 정책FGI**. 회의자료 (내부자료).
- 피엠아이. (2022).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서울: 서울특별시, 피엠아이.
-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사회조사 원자료**.
- 헨리 데이비드 소로. (2017). **월든 Walden**. 파주: 열림원.
- 씨리얼. (2022. 11. 18.). 히키코모리가 자기 자신이 부끄러운 이유: EP.01.은둔형외톨이 청년의 이야기. <https://www.youtube.com/watch?v=>

CcqN4dKnqKo에서 2023. 2. 2.인출.

Billari, C., & Liefbroer, C. (2010). Towards a new pattern of transition to adulthood? *Advances in Life Course Research, 15*(2-3), 59-75.

Buchmann, C., & Kriesi, I. (2011). Transition to adulthood in Europe. *Annual Review of Sociology, 37*, 481-503.

OECD. (2013). *OECD Guidelines on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Paris: OECD Publishing.

# The Living Conditions of Isolated and Secluded Young Adults: Policy Options for Supporting Them

Kim, Seonga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In this article, I aim to find out the direction of support at the level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by identifying the vulnerable life conditions of isolated and secluded young adults. Isolated or secluded young people lack meaningful social relationships with others and social support that can help them in times of difficulty. Isolated or secluded young adults have lower overall life satisfaction levels and experience multidimensional vulnerabilities. Youth-friendly support is needed to prevent young adults from being isolated or secluded. In order to support isolated and secluded young adults, we should have policy goals for their recovery and social integration based on stable institutional foundations such as regular surveys and legal grounds.